



집중호우에 가축 100만마리 폐사

농식품부, 축산기계·장비 수리팀 구성... 폭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기계·장비 수리팀을 구성해 폭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폭우로 축산 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폭우 복구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 축산 기계·장비 수리팀의 모습

지난 7월 집중된 폭우로 인해 지난 8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24.6헥타르)의 축사가 침수되고 99만9,000마리의 가축(닭·오리 94만1,000마리, 돼지 3,800마리, 소 900마리, 기타 5만3,800마리)이 폐사했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돼 축산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축사의 경우 불어난 물에 가축분뇨 등이 유출돼 토양오염 및 악취 확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스마트축산장비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충남·충북·경북·전북 등 4개 권역의 침수장비 현장수리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빠짐 이후 가축 사양·환경·방역 관련 컨설팅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이번 청양군 복구지원은 이같은 방안